

위대한 김일성 -

조동신문

김정일주의 만세 !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이 흘렀다. 장구하고도 영광된 이 날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히 온 성스러운 행로이다. 여기에 우리 당만이 지나고 있는 높은 존엄과 전위, 불패의 전투력과 영원한 생명력의 근본원천이 있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10월의 대축전장을 마중해 가는 한민군민의 마음에서 혁명적 당 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김사의 정파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이 세차게 끓어넘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우리 당은 세상이 열매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빛을 뿐될 것이다.

1

우리 당의 70성상은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애민원심으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금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고 있습니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심장이다. 당시의 경도밀에서만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며 당시의 불평등의 담보는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광장길이 뛰어박은 나무가 그 어떤 사나운 바람에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민과 협연체류 대를 이룬 당은 혁사의 존엄한 평통우속에서도 고개하지 않는다.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실현하자면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둘째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청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당, 이것은 혁명하는 당의 본래이고 기본정표이다.

우리 당의 창건은 혁사상 처음으로 되는 어머니당의 탄생이었다. 인민대중 중심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으로, 근로하는 인민의 혁리와 협원실현을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직적물간으로 하여 창건된 주체의 혁명적당이 조선로동당이다. 그때로부터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솔고한 책임임을 알고 자지발전의 경로를 인민증시, 인민증증, 인민증의 세 가지로 되었다. 인민증이라는 것은 어머니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으로 지어졌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한 독소는 세도와 외란주의이다. 우리 당은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압력과 불의와 비인간적인 것을 쓸어버리며 인민에게 친환경 삶과 정치적전리를 끌어주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철두철미로 이끌어 복종시키며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멀사복무하여 온것이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당을 어머니라고 정진에 넘쳐 부르며 그 품에 모든 것을 말기고 한마음한뜻으로 밟들어왔다.

인류혁사에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혁리를 대표하는 각양각색의 당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어느 당도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라고 불리워 본적은 없다. 당은 어머니, 이것은 간고하고 시련에 친 투쟁의 길에서 가장 값은 일은 인생의 영광을 누려온 우리 인민에게서만 터져나올수 있는 심장의 분출이다.

우리 당역사는 모진 광동속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삶을 굳건히 담보하여온 인민수호의 혁사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존엄은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본성적요구를 실현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몸이나 같다.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권위있는 인민만이 자기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수 있다. 물론 인민들은 물질생계생활도 중요하다. 하지만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엄이고 권리이다. 근로대중을 영원히 노예화하고 인민이 주인된 사회를 없애 버리기 위해 미처 날뛰는 원수들의 책동으로부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이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나라일은 망국노의 설음도 겪었고 전대미문의 엄혹한 전쟁도 치르었으며 제국주의 빙산에 험한 혁명의 흥망처럼도 받아왔다. 새상에 우리 인민처럼 생사존망의 고비를 무수히 헤쳐온 인민은 없다. 혁명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민족멸살의 위기에서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고 우리 인민에게 새기를 이어 무적필승의 강국에서 벗어나게, 당당하게 살도록 하여준 위대한 수호자, 보호자가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우리 당은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인민의 존엄을 걸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고수하여왔다. 우리 당이 청소년 공화국을 승리에로 이끌어 강대한 미제주국의 풍랑에 헤쳐온 양보나 타협에 없이 외세의 곤질길로 도전과 간접을 걸을마다 단호히 쳐물려친것은 인민을 위하여 이룩한 불멸의 공적으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제269호 [루체 제25047호] 주제 104 (2015)년 9월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화 전달하는 행사

알제리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화 전달하는 행사를 가이에서 명예박사 칭호를 수여받으신 40돐에 즈음하여 16일 알제리 알제리에서 제1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는 알제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1975년 5월 27일 알제리 대학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운이다. 이 사진문화는 우리 대학의 가장 귀중한 역사문화로서 깊이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조선의 종합대학 학생들의 친선협조관계와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아브들 하미드 빈 시니티 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명예박사 칭호를 수여받으시는 사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브라질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었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파 캄보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에 대한 개발장을 보내고 있다.

발행식에는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지도부와 브라질위원회 인사들, 브라질 자유조국당의 교직원, 학

문헌을 대학에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대학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최대의 영광이며 행운이다. 이 사진문화는 우리 대학의 가장 귀중한 역사문화로서 깊이 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조선의 종합대학 학생들의 친선협조관계와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지금 많은 브라질 사람들은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을 읽고 있으며 조선인민의 봉투에 지지와 현대성을 보내고 있다.

회고록 학습을 통하여 브라질의 청년대학생들은 조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은 민족의 어버이

남조선 각계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이 땅에 만민이 부려워하는 자주독립 국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여 주체 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남기셨다.

거예는 가슴뜨겁게 둘이 캐 보고 있다.

『한민족복지제단』 성원 김강현은 오늘날 이북이 근로민중이 주인이 된 특별한 사회주의 제도로, 백성만을 아로새기는 사회주의 나라로 명성을 떨며 세인의 경란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절세 위인의 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항일회 회장은 한 모임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님은 단군이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신 민족의 힘을 이시고 전국의 어버이 이시다.

칠칠암 애에 해성처럼 출현하시여 봄을 맡아 주시고 해방 후에는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려는

민족의 의 의사와 네원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이 북부로 알기 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그때로써 이북에서는 근로민중이 사회주의 주인이며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 당당자들이다. 근로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주권과 재부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이북은 민족 중심의 세상이다고 친환경하였다.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는 제자들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기 위해 블면불휴로 미제로 막고 계시고 하늘을 세우려는 경련을 자아내는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국민이 복락하는 민족의 탁월성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말하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강력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시기 위해 블면불휴로 미제로 막고 계시고 하늘을 세우려는 경련을 자아내는 천지개벽을 이룩하고 국민이 복락하는 민족의 탁월성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이

북에서 근로민중이 국가관리에 참

가하고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망

라되어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있고 로동파 휴식, 무료교육과 무

는 힘을 다하여 통일적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며 민족주의적 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벌렬히 대하여 천명 하시였다.

그리하여 남파 북의 전지역에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진행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려는

민족의 의사와 네원이 빛나게 실

현되게 되었다.

이 북부로 알기 회장은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그때

로써 이북에서는 근로민중이

사회주의 주인으로, 주권과 재부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이북은

민족 중심의 세상이다고 친환경하였다.

경북대학교의 한 교수는 공화국이 지난 높은 영예와 존엄, 이북민중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

이 모든 것은 전국의 어버이 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이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평도와 코나

큰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은 그대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유산이다고 명언하였다.

인천의 한 주민은 김일성주석님은

인류 앞에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시고 하늘길에 솟은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어버이 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서울대학교의 한 법학교수는 이

북에서 근로민중이 국가관리에 참

가하고 정당, 사회단체 조직들에 망

라되어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있고 로동파 휴식, 무료교육과 무

상치료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적 혜택을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다 김일성주석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부산의 기업가 리영만은 통로를

에게 이북에서는 근로민중이 사회의 주인이며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고 운영해나가는 당당자들이다. 근로민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주권과 재부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이북은

민족 중심의 세상이다고 친환경하였다.

경북대학교의 한 퇴직교수는 공화국이 지난 높은 영예와 존엄, 이북민중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 이 모든 것은 전국의 어버이 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이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평도와 코나큰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은 그대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유산이다고 명언하였다.

인천의 한 주민은 김일성주석님은 인류 앞에 쌓으신 업적으로 하여 영생하시고 하늘길에 솟은 덕망을 지니신 민족의 어버이 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발는 존엄 높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 강화발전시키였다.

또한 당을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였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은 혁신에서 온갖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나라는 실정에 맞게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것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 위업에 투철한 공원을 하고 계신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기네 광광종합대학에서는 토론회가, 나이제리아자력생생연구소조, 라고스에는 대체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파 캄보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에 대한 개발장을 보내고 있다.

회고록 학습을 통하여 브라질의 청년대학생들은 조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에 즈음하여 기네 광광종합대학에서는 토론회가, 나이제리아자력생생연구소조, 라고스에서는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16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당창건 기념집』, 『동도원 국제제조단년』, 『영조』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기네 광광종합대학 주제사연구소조 책임자를 비롯한 토론자

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한 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답으로 강화하는데 대하여 친정하였다.

그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한 치의 틈도 없이 계승완성해나

가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 사랑, 인민중심의 정치를 펼쳐

고개신다, 그의 평도에 조

선에서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진실로 꽂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힘으로 당을 지도사상으로

한 당,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답으로 강화하는데 대하여 친정하였다.

나이제리아자력생생연구소조 대표원장은 『사회주의 위업의 전진과 당의 평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일성 주석과 서 와 김정일 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 위업에 투철한 공원을 하고 계신다.

준비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토론회, 강연회 등 대체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토론회, 사전모임, 사전진시회,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행사를 의

의하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9월 21일로써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석탄생산에 앞서 중시한 종업원들의 생활향상문제

계획수행은 생산단위 일군들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시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을 북창지구 탐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다.

두해전 9월 북창지구 탐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임부로부터 임명되어 온 김영훈동무는 단위 실태를 떠나면서 생각이 깊었다. 다른 단위들에서 '발전소를 전설한다'는 후방토대를 갖추어 놓는다 하며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일군들이 밤이 밟도록 뛰어들 때 렌탈기업소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가 풍복지구에 탄부휴양소와 체육관을 건설할 것을 발기하였을 때 적지 않은 일군들 속에서는 의젓들이 제기되었다.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해도 바쁜데 언제 그런 일까지 앓고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번 관찰과 텁정은 탄부휴양소 건설을 시작했을 때 더욱 우선하게 나타났다.

돌격구령에 나섰지만 첫날 공사에 달라붙은 단위는 얼마 되지 않았다. 원인을 알아보니 생산이 급장하여 배문에 여유로력이 없다는 것였다.

이 사실에서 당책임일군은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생산수자를 보기 전에 탄부를

북창지구 탐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을 먼저 보는 관점에 설 때 그

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

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혼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책임일군은 련합기업소 일

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기의

생각을 떠놓았다.

지금 적이 좋은 일군들이 생산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탄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

다. 다른 탄부들에서 '발전소를

전설한다'는 후방토대를 갖추어 놓

는다 하며 종업원들의 생활향상

을 위해 일군들이 밤이 밟도록

뛰어들 때 렌탈기업소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이다.

그가 풍복지구에 탄부휴양소

와 체육관을 건설할 것을 발기하였을 때 적지 않은 일군들 속에서는

의젓들이 제기되었다.

생산계획을 수행하고 해도 바쁜데 언제 그런 일까지 앓고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번 관찰과 텁정은 탄부휴양소 건설을 시작했을 때 더욱 우선하게 나타났다.

돌격구령에 나섰지만 첫날 공

사에 달라붙은 단위는 얼마 되지 않았다. 원인을 알아보니 생

산이 급장하여 배문에 여유로력이 없다는 것였다.

이 사실에서 당책임일군은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생산수자를 보기 전에 탄부를

먼저 보는 관점에 설 때 그

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

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혼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책임일군은 련합기업소 일

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기의

생각을 떠놓았다.

지금 적이 좋은 일군들이 생산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탄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

다. 다른 탄부들에서 '발전소를

전설한다'는 후방토대를 갖추어 놓

는다 하며 종업원들의 생활향상

을 위해 일군들이 밤이 밟도록

뛰어들 때 렌탈기업소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이다.

그는 방도를 모색하며 여러

사람들과 파도의 논해보았다. 이

과정에 어느 한 단위에 있는

기술자와 협력하여 지봉감

문제를 풀자는 제안은 지배인의

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수령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고 오

해동안 흔들며 격려해주시었다.

나는 어버이 수령님 앞에서 물파

마음을 다 바쳐 북창회의 결정과

철저히 편찰함으로써 그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평양으로 틈이 가는 우리 혁동농장에 끄적여보내고 텁정으로 틈이

나온다. 그리고 물파를 받았을 때

</

값 높은 창조의 길에 새겨진 고결한 지향

회령화학일용품공장 기술준비실장로정옥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석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예쁜 삶을 넘긴 할머니였다.

제소한 물질, 마디가 거울진 손, 흰서리가 내린 머리...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나라를 위한 일감은 어디에나 있다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소? 우리 관리소는 연구단위가 아니라, 쓰레기로 생활일랑 말고 맙은 일이니 잘하오.』

한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세 번째로 듣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로정옥동무는 첫 출근으로 관리소 일군의 방에 들렸을 때였다. 전화를 하고 있던 그 일군이 차를 놓았던 텅 빈 방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흔들었다. 그 일은 당시에는 일군에게는 일상적인 일상이었다.

『통운 관리소에 물자비가 바닥났다는 걸 모르오? 어찌 죄소 모자리는데 물자들에 계 랑해를 구하며 통사하는 수밖에!』

로정옥동무는 그날 통사단위들에서 비누나 구두약같은 소비품이 모자라 다른 나라의 것을 수입해다 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가볍지 않았다. 며칠 후 종업원회의에서 한 리파사처녀가 손님들이 미리를 깨운 다음 크림이나 비누를 살 때 같은 계일 안타깝다고 하였을 때에는 그 말이 자기 지혜와 열정에 앞서 수입된 물건에 대한 책임을 끌어올렸다. 그는 여전히 남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학장을 전공한 대학졸업생이다. 생활에서 가장 초보적인 필수품조차도 남의 것을 써야 하는 이 현실을 외면한다?

아니다. 나의 덕으로 대학공부를 한 내가 이 문제를 끌어야 한다.)

비로소 그는 결심했다.

수입에 의존하면 소비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의 제의는 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니 그들은 로정옥동무의 가슴 속에 무엇이 품고 있는지 다는 물었다.

그것은 이 땅의 공민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스스로 새겨온은 향심이고, 자각이 있으며 보살펴 주고 기워온 나라는 온데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불리는 지향이었다. …

며칠후 관리소 건물 한 쪽에에는 보답이 따라온다는 걸.

그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품이 있었기 때문에 로정옥동무는 전화의 불을 끊어서 학업을 하면서도 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을 대체로 헤아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머니가 사는 군으로 온 그는 편의 품을 끊었다.

나라 없던 비운의 세월 그는 둘러보면 산밖에 보이는 것 없는 척박한 고장에서 어버지 아버지 일에 어려운 길과의 다툴처럼 구울며 살아왔다. 그러니 그는 먹여주고 일하고 주고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이었다.

해방된 조국은 그에게 배움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를 사법전문학교로 떠나보내며 어머니는 말했다.

『나라에 네가 상급학교에 다니는구나. 잊지 말아라. 온에는 보답이 따라온다는 걸.』

그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품이 있었기 때문에 로정옥동무는 전화의 불을 끊어서 학업을 하면서도 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을 대체로 헤아렸다.

유서 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표

가지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하여 다섯달만에 질좋은 크림과 구두약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러던 주제 58(1969)년 가을 어느 날 로정옥동무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영광을 받아 알게 되었다.

함경북도를 현지지도하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그가 만든 고급구두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들을 살피면서 조성화와 나라는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회령화학일용품공장 기술준비실 실장로정옥동무를 칭찬하였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

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 그러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다. 그것은 지혜와 열정에 넘친 눈빛이었다.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그의 삶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애국을 위함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의 땅이 깃는 창조물을 내놓으라!

그는 풀밭처럼 한생을 산

오늘의 하루하루를 비상한 창조와 혁신으로 빛내이자

우리의 멋, 우리의 긍지가 여기에 있다

강원도 자력갱생 전시관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강원도에서 지역생생전시관을 새로 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게 되었다.

천리마케로 두드러지게 부각된 전시관현관이 우리의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자력갱생전시관!

저도모르게 가슴부듯해지게 하는 멋진하고도 자랑스러운 그 글씨며 더불어 커다란 관심을 암고 우리는 전시관안으로 들어섰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밟아야 한다. 그동안은 우리를 이기고 우는 지역생생전시관을 철저히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풀어야 한다.」

전시관에 들어선 우리는 훌륭히 꾸려진 내부환경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정갈하게 꾸려진 내부의 거울같은 바닥타일이며 벽과 천정의 특색있는 마감장식, 현대적감이 나는 나들문들……

이 모든것이 도에서 자체로 생산한 마감재와 건축물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전시관에 참석한 일군의 눈에 놀라움은 커다란 것이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이

일생산공정, 각종 건축장식 구제로, 할금재료, 전력공업 재료, 강철공업의 첨가제 등은 도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새로 창조된 고속소성용 내열사기로 탕생물공장과 마그-일루미나-티파니 회화물생산공장……

이번 이야기를 들으며 전시관 제품들을 돌아보느라니

이제품은 전시관에 들어온 수많은 지역생생

자체로 생산되었던 것이다.

마감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의 디자인, 디종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모든 마감재를 자체로 생산보장할 때에는 우리에게 품질을 높여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귀중한 지역생생의 창조물들이여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우리는 2, 3관에 끼어온 마감재 전시관들에

발걸음을 옮기었다.

『마감재의 국산화비중

을 높일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의 원료에

의지한 강력한 마감재생산

기지를 꾸려놓고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마감재들을 무

엇이나 다 만들어내고 있습

니다.』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 일군의 말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기능성

도자기생산과 고급전기기자

기와 건설기기생산, 알루미늄생

산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원료이다.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

대로 둘러나가는 과정을 통

하여 대중을 각성시키고 분

발시킨 것이다.

관리소에는 남달리 기계속

내에 밝은 기술자가 있었다.

군人们은 지난 시기처럼

기술자들을 책임자로

선행하고 기술자와 해당부

야에 조례에 있는 몇몇 종업

원들을 보조설정으로 임명하였다.

이것은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어린 종업

원들의 사기를 북돋이주고

그들의 실력을 높여 시일안

에 끌어온 힘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 무엇이 좋았

는가?

생산설비를 만들어내는데

는 제기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 종업원

들이 함께 연구사업을 진행

하니 필요한 부속품과 자

재 등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으며 결과 설비제작기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설비제작과정에 종업

원들속에 남아있던 기술신비

주의가 물거품처럼 사라

졌다.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설비가 실지 생산에서

온나타내는 것을 보며 종

업원들은 과학기술사업도 많

이기 때문에 달려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저마다

새로운 창의고안들을 내놓았다.

비단 이들뿐이 아니라

종전의 일군들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해나

가면서 잘한 것은 다음으로

종업원들의 창작을 키우

고집하였다.

그는 공화국에 대하여 느낀 감

정과 견해를 사실 그대로 알립

써 공화국에 대한 미국사회현민의

인식이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밝히고 싶어 여러 기자들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면서 다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에 대하여 느낀 감

정과 견해를 사실 그대로 알립

써 공화국에 대한 미국사회현민의

인식이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밝히고 싶어 여러 기자들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면서 다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에 대하여 느낀 감

정과 견해를 사실 그대로 알립

써 공화국에 대한 미국사회현민의

인식이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밝히고 싶어 여러 기자들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면서 다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

든것이 인민의 의리를 위하여 봉

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이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

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

두 일상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민대학당원 보아도 전민

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로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

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

두 일상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방주부당원으로서

인민대학당원 보아도 전민

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로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

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

두 일상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방주부당원으로서

인민대학당원 보아도 전민

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로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

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

두 일상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방주부당원으로서

인민대학당원 보아도 전민

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로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

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

두 일상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

우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방주부당원으로서

인민대학당원 보아도 전민

이 학습하는 규모가 대단히 큰

도서관으로서 특정한 사람들만

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로다.

나는 평양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제일 훌

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모

두 일상시민들을 위한것으로서

